

大學의 發展을 생각하며



서울大 總長 權 彥 赫

大學教育 創刊號의 發刊을 祝賀하며 大學院 中心大學에 관한 愚見을 적어본다. 우리나라에 많은 大學이 있고 大學마다 훌륭히 發展하고자 努力하고 있다는 현실은 높이 評價될 만하며 大學人의 한 사람으로서 慶賀해 마지 않는 바이다. 大學教育이 學士課程教育과 大學院課程教育으로 大分된다는 것은 常識에 속하는 일이다. 따라서 大學은 이 兩分野에 대해서 中斷없는 努力과 投資를 해야 한다. 물론 學士課程教育과 大學院教育課程은 分離되는 性質의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大學이 이 兩者에 集中的일 수는 없다는 것이 筆者의 見解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大學院中心大學이란 用語가 創出된 것으로 안다. 여러가지 與件 때문에 모든 大學이 大學院中心大學으로 된다는 것은 無理한 要求이다.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標榜은 實現性이 없는 것이며 또 冷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럴 必要도 없는 것이다. 많은 大學 중에서 그래도 與件이 具備되어 있다는 大學이 大學院中心大學으로서의 役割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筆者의 率直한 意見이다.

大學院中心大學이란 語句가 誤解를 誘發할 수 있는 素地도 있다. 學士課程教育보다 大學院課程教育에 重點을 둔다든가 아예 學士課程은 없애고 大學院課程만 설치한다는 등으로 해석되기 쉬우나 大學院中心大學이란 表現이 갖는 性格은 그것이 아니다. 學士課程은 물론 設置하고 大學院生의 數를 增加시켜 學士課程과 大學院課程의 學生比率을 1.5대1, 또는 2대1정도로 유지한다는 것이 그 內容이다. 外國의 경우는 學士課程生의 數가 大學院課程生의 數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許多하게 있다. 그러나 學士課程이 全廢되어 있다는 예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 大學院教育이 大學教育의 重要한 部分이기는 하지만 學士課程教育이 없는 大學教育에서는 大學이 지니는 참뜻을 찾기 힘들 것이다.

이 兩者는 언제고 有機的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도 소홀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만큼 大學院中心大學으로서의 發展은 어려운 것이며 여기에는 非常한 努力과 끊임없는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大學教育의 大衆化는 世界的 趨勢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1980年 教育改革 以來 이러한 흐름이 현저하게 되었고 많은 課題를 產出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處地에서든 大學教育의 大衆化에도 不拘하고 教育水準의 質的 低下를 막는 것은 물론 이의 向上을 期해야 하는 것이 大學人이 안고 있는 至上的 課題이다. 이런 경우에 우선 대상이 學士課程教育으로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大學院課程教育은 2次的으로 되기 쉽다. 그런데 大學院中心大學에 있어서는 이 兩者가 다같이 우선 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니 그만큼 어려운 點이 많게 된다.

大學에 대한 社會的 期待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큰 바가 있다. 첫째로 社會는 大學에 대하여 教育水準의 質的 向上을 바란다. 前述한 바와같이 教育水準의 質的 向上이 大學人의 至上的 課

題이지만 大學人에 못지 않게 大學에 대한 社會의 期待는 큰 것이다. 둘째로 大學은 社會가 要求하는 高級專門人力을 養成해야 하는 義務가 있다. 社會가 必要로 하는 高級專門人力을 養成해 줄 것을 社會는 切實하게 期待한다. 大學에 대한 社會의 期待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大學은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代表的인 것은 學問의 研究開發과 知識의 擴散 및 國際的인 學問交流의 擴大를 들 수 있다. 이 兩者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것이며 學問이 人類의 共同財産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大學이 大學院中心大學으로 轉換한다는 것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必要性도 없는 것이나 與件을 갖추었다고 評價되는 大學은 願하든 願치 않든 간에 이 課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大學 중의 하나가 서울大學校라고 생각한다. 서울大學校가 大學院中心大學으로서의 機能을 強化해야 한다는 主張이 요사이엔 강조된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 學論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보다 具體的으로 強調된 것은 1971年 以來라고 생각된다. 學問研究에 보다 重要하고 教授要員과 研究要員을 養成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主張의 바탕으로 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사실상 高等教育에 있어서의 先導的 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는 지극히 당연한 主張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서울大學校는 文敎部의 支援下에 大學院課程志向으로 轉換하려는 努力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努力을 통해서 많은 經驗을 얻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人力과 制度的 裝置라고 하겠다. 教授人力의 確保가 쉽지 않다는 것은 周知되어 있는 일이지만 既成人士를 맞이하는 경우이건, 젊은 人士를 訓練시켜서 받아들이는 경우이건 간에 最善의 努力을 다해야 한다는 結論을 얻었다. 教授人力은 學問體系나 研究力量과 直結된다. 오늘날 大學人이 안고 있는 여러 課題 중에서 學問體系의 定立과 더불어 教授의 學問的 傳統樹立의 緊要性은 過去의 어느 때보다도 重點的으로 論議된다. 뿐만 아니라 教育 및 研究力量의 集結에 대해서도 되풀이하여 強調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大學院課程志向教育을 실시하는 方面에서는 不可避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學士課程教育에서 上述한 바와 같은 점이 소홀히 다루어져도 좋다는 것은 물론 아니며 이와 같은 점은 大學教育全般에 걸쳐서 언제고 學論되고 強調되는 것이다.

制度的 裝置에 있어서도 改善되어야 할 점은 많다. 教授의 負擔加重문제, 擔當教授의 選別的任用문제, 大學院學生 入學定員문제, 他大學 大學院과의 協同關係改善문제 등 許多한 것이 있다.

한편 大學院中心大學의 경우에 研究所와의 관련문제가 또 하나의 課題로서 등장한다. 大學에 설치 되어 있는 研究所는 그 나름대로 설치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며 大學의 發展을 위한 중요한 手段의 하나라고 믿어진다. 모든 경우에 研究所는 제구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특히 大學院中心大學의 경우에는 研究所의 機能이 重要한 뜻을 지니는 것이며 大學院教育과 直結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研究所는 文字 그대로 研究하는 場이지만 大學院을 中心으로 하여 고찰한다면 大學院生의 研究訓練의 場으로 되는 것이다. 學位論文을 위한 研究나 訓練이 研究所에서 이루어진다는 예를 識者들은 잘 알고 있다.

一般的으로 大學內에 설치되어 있는 研究所가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몇몇 例外的인 研究所가 있기는 하지만 大部分의 研究所가 활발치 못하다는 점을 否認하기는 힘들다. 여기에는 그만큼 理由가 없지 않다. 大學當局의 支援도 不足하고 研究所를 運營하는 關係人士에게도 責任이 있다고 하겠다. 어찌됐든 基礎學問의 研究, 應用科學의 活性化, 地域研究의 育成 등이 大學의 研究分野에서 緊要하고도 時急한 課題로 등장하는데 이들 課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研究所의 役割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研究所의 機能이 활발치 못하다는 사실은 그대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大學院中心大學의 경우에 그 뜻은 加重된다.

學士課程의 教育水準을 더욱 높이면서 大學院教育을 充實하게 하는 데에서 大學院中心大學의 참 뜻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되풀이 하면서 愚見의 提示를 끝 맺는다. 大學教育協議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한다.

*